

시선

사설

철학 없는 행정을 넘어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야

‘교육평가’의 정의에 대해 교육학자들은 다양하게 구분해 왔다. 먼저 R.W.타일러는 교육평가를 ‘목표달성을 위한 확인을 위한 것’이라 규정했다. 교육목표가 평가의 준거가 되어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 획득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교육평가의 의의라고 간주하는 관점이다. M.S.스크리븐과 R.E.스테이크 등의 학자는 교육평가를 ‘교육과 관련된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과 그 산물’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교육평가는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수립한 이후, 이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우리학교는 여기에 또 하나의 정의를 추가했다. ‘교육평가는 학점 평균치의 원활한 조정 및 관리를 위해 B0 이하 등으로 특정하게 규정된 강좌별 평균학점을 어긋난 없이 맞춰나가는 작업’이라는 정의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이 새로운 정의의 마땅한 당위성을 찾기가 어려웠던지, ‘대학전체 성적분포를 단과대학 평가에 반영하고, 강좌별 성적평가 결과를 인사 및 재임용 자료로 활용한다’는 ‘위협’까지 동원했다.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가장 먼저 우리학교의 이번 조치는 ‘평가’와 관련한 그 어떤 교육학적 의미도 무화(無化)시키고 있기에 실망스럽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학교의 모든 수업에서 획득된 성과는 일률적으로 평균 B0가 될 것이다. 학업성과에 이르는 학생들의 수없이 다양한 과정과 노력 역시 평균 B0라는 성적으로 환산될 것이다.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수립되든 간에, 그 평가의 결과는 결국 평균 B0라는 수치로 도출될 것이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학교 측은 ‘최하위 수준인 학점관리 현황’을 들먹이지만, 학점 인플레이션 논란은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낮은 학점’을 부여해 당장 드러나는 통계적 수치만 낮추는 ‘꼼수’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선 공정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시스템을 세밀하게 개선하여 적확한 학점을 부여하는 정수(正手)가 요구될 따름이다.

더불어, 학교 측이 이 꼼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갑(甲)의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것 역시 큰 실망을 안겨준다. 무려 ‘학장회의’라는 권력 집단에서 태동한 이번 조치가 ‘단과대학 평가’와 ‘인사 및 재임용 평가자료’라는 무수한 교강사들의 취약점을 불모삼아 강행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의 가치를 탐색’하자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진정성마저 크게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그 내용과 진행과정 모두에서 ‘경희 교육의 가치관’과 관련한 그 어떠한 철학도, 신념도 읽히지 않는다. 오직 ‘점수를 맞추기 위한 점수’와 ‘대학’ 평가를 대비한 (성적)평가’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학교 측은 진정 이것이 경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안은 ‘조치의 문제’를 넘어선 ‘가치의 문제’다. 때문에 이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우려를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호텔경영학과 최정길 교수 대한경영학회 총회서 회장으로 선출

미디어 여론동향 2014. 12. 1 ~ 12. 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경영학회 총회에서 최정길(호텔경영학) 교수가 제27대 회장에 선출됐다.(최정길 경희대 교수, 대한경영학회 27대 회장 선임/뉴스1, 2014. 12.1) 최 교수는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버지니아폴리테크닉 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쳤다. 이후 우리학교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학과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호텔관광대학 국제교류사업센터장, 관광산업연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여러분의 한 표는 소중합니다

임하리

이주의 주제 - 국제캠·정경대 투표과정 논란

‘신뢰 회복’이 건강한 학생사회의 기본이다.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대학 유학생회 선거에서 실무위원, 심지어 후보자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된 일이었지만, 정경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관련해 짧막한 사과문과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만 내놓았다.

길었던 학생회 선거가 지난 3일 매듭지어졌다. 서울캠퍼스(서울캠)의 경우 총학생회(총학) 투표율은 51.3%로 투표 인정기준인 50%를 간신히 넘었고,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4년 만의 경선에 힘을 받아 전년보다 4%pt가량 상승한 64.3%의 유 헌투표율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단과대학 선거는 끝났지만, 서울캠 문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국제캠 외국어대학 등은 첫 입후보기간 때 출마자가 없어, 재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아예 출마자가 없어 내년 3월까지 ‘비대위’ 체제로 움직여야 하는 곳도 존재한다.

학생사회의 낮은 투표율은 고질적인 치부다. 후보자가 없어 점점 축소되는 학생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유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펙경쟁’으로 대표되는 협 사회의 풍토 속에서 관심 가질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회문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참여나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신뢰가 낮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주의 절차에 가장 기본인 투표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캠 정경

구원 HATIS 기획평가&디자인 연구소 소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대한경영학회는 현재 4,536명의 회원을 두 국내 최대 경영학회다.

파나소닉코리아는 지난달 28일 ‘2014 IBS 산학협력 대회’를 개최했다.(파나소닉코리아, 2014 IBS 산학협력 대상에 경희대/조세일보, 2014. 12. 1) IBS(Intervarsity Business Society)는 중앙대, 한양대, 우리학교 학생들의 연합 경영학회로 이번에 파나소닉코리아가 제시한 주제 ‘파나소닉의 20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 6개팀이 참가, 최우수상에 우리학교(D-DAY)팀이 수상했다. 우리학교(D-DAY) 팀은 파나소닉코리아의 똑똑한 전기면도기 램대쉬 ES-ST25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조사와 특유의 아이디어로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다.

우리학교(D-DAY) 팀장 문비순(경영학 2009) 학생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격스럽고 준비하는 시간동안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마케터로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해 준 파나소닉코리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가 공동 제정한 ‘제13회 한

미참의료인상’ 수상자에 우리학교 네오플러스봉사단이 선정됐다.(한미참의료인상에 성영자/네오플러스봉사단, 경향신문, 2014. 12. 1)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일 시상식을 갖고 네오플러스봉사단에 상금 3,000만 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네오플러스봉사단은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체로 의학, 한의학, 치의학 등을 결합한 통합 의료봉사활동을 국내·외에서 펼치고 있다. 특히 봉사단은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국가 대상의 활동에서는 일방적 의료혜택 전달을 지양하고 현지 의사를 교육하는 등의 ‘자립형 봉사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 2일 제16대 회장에 강제상(행정학) 교수를 선출했다. (강제상 경희대 교수, 한국인사행정학회 16대 회장에/한국대학신문, 2014. 12. 2)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는 공공·민간 부문의 인력 관리를 연구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강제상 교수는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2005년 2월부터 우리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학과장, 입학관리처장 등을 역임했다.

연말 ‘당신’의 반성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1. 대학주보 활동을 하면서 단점을 하나 꼽으면, ‘종간’을 마치 ‘종강’처럼 느끼는 점이다. 아직 기말고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웨지 학기 중 마지막 신문을 만들고 나면 그 학기를 다 털어낸 느낌이다. 심지어 4학년 2학기에, 두 번째 편집장에, 쌀쌀한 날씨까지! 청승 떨기 좋은 요소를 갖춘 이번 신문제작 중 마음을 다잡기 위해 대학주보 페이스북 커버사진을 바꿨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겠다’

종간과 종강이 다르듯, 타협과 협력은 그 결이 다르다. 그러나 돌아볼 때마다 협력을 빙자해 현실과 타협한 것들이 눈에 밟힌다. 취재 도중에 포기한 것들, 소문은 무성하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보도하지 못한 것들, 믿고 이야기를 털어놨으나 책임지지 못한 것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칼럼이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혼자 반성문을 쓰기에는 속이 좁다. 같이 쓸 사람들을 뽑아봤다.

#2. 가장 먼저 ‘동대문구청’이 떠오른다. 올해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임대업자들의 폐쓰기에 얻은 것은 ‘생채기’에 불과했다. 결국 행정심판으로까지 떠 민 동대문구청의 결정은 그런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일 이었다. 현재 SPACE21 건설사업단과 동대문구청 간 협의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동안 느꼈던 실망을 기억하면 선불리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음 신문에는 반성할 사람보다는 자랑할 사람으로 넘치길 바래본다

이사회도 반성문을 쓰면 좋겠다. 올해 초 ‘관선이사체제’까지 걱정하게 했던 이사회는 늘 지적받았던 투명한 이사회 운영의 ‘기초’인 회의록 공개를 두고 뜻밖을 맞았다. 10월 31일에 열렸던 이사회 회의록은 이번에도 규정과 달리 지난 12월 2일에서야 올라왔다. 그나마 평소보다 빨라진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까.(늘 내용은 길지 않는데…)

끝으로 우리학교 청소노동자와 단체협상 중인 용역업체에게도 반성을 권한다. 사실 지난해 단체협상이 올해 7월에야 비로소 맺어진 점을 감안하면, 청소노동자가 올해 임금협상을 하지 않은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도 지지부진한 과정이고, 다시 단체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걱정된다.(그렇다고 해도 직고용은 ‘유연화’라는 표현으로 미뤄지겠지만.)

#3. 글쓰는 이의 좁은 속을 닦아서 그런지, 이 ‘세시봉’도 비좁아 함께 반성문을 쓸 사람을 넉넉히 적을 수 없어 아쉽다. 독자 여러분 중 대학주보에 한 번쯤 (좋지 않은 일로) 이를 올렸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알아서 들 하시길! 대학주보는 이번 신문의 다짐처럼 꽃꽂하게 반성문 쓸 이들을 찾아다니겠지만, 그래도 다음 신문에는 반성할 사람보다는 자랑할 사람으로 넘치길 바래본다.

PS - 뜯된 편집장 탓에 고생한 모든 이의 인내에 감사하다. 남은 임기 조금 더 괴롭히고 가겠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인수)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기)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